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정답

1	⑤	2	③	3	①	4	⑤	5	④
6	④	7	①	8	①	9	④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①	15	①
16	③	17	②						

[1~2] 2013.03 독서법

1. ‘승호’의 독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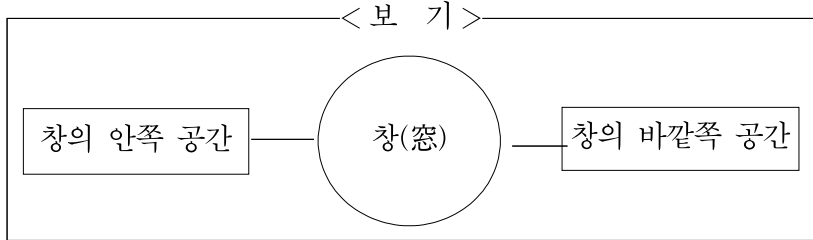
- 읽기 전 활동
 - 책의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했다.
 -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책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다. ①
 - ➔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떠올리며 관련된 질문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읽기 중 활동
 -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면서 작가와 의사소통하는 독서를 했다. ②
 - ➔ 책을 읽으며 작가에게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없앴습니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작가와 소통하는 독서를 하고 있다.
 - 독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서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③
 - ➔ 독서를 하며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밀하게 이해하며 읽지 않은 자신의 독서 태도를 점검하고 있다.
- 읽기 후 활동
 -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했다. ... ④
 - ➔ 느낀 점에서 자신이 과학기술을 맹신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고 있다.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았다. ... ⑤
 - ➔ 승호는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과 ㉡에 주목해 ‘승호’의 독서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승호’는 ㉠의 독서 상황을 고려해 ㉡과 같이 독서 활동의 의미에 대해 서술했군.
- ➔ ㉠은 독서 상황이 아닌 승호의 경험과 평소 가치관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승호’는 ㉠의 독서 목적에 따라 참고 자료를 조사해 ㉡과 같은 결론을 내렸군.
- ➔ ㉠은 독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를 읽은 것과 서점을 간 것은 큰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나타난 ‘승호’의 가치관이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겠군.
- ➔ ㉠에는 승호의 과학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승호는 ‘멋진 신세계’를 읽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하여야 한다는 ㉡과 같은 의미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에 제시된 경험 때문에 ‘승호’는 ㉡과 같이 책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이겠군.
- ➔ ㉠은 승호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지만, ㉡에서 책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승호’는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군.
- ➔ ㉠은 단순한 승호의 경험과 가치관일 뿐, 문제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3~6] 2008.10 김관식 ‘거산호Ⅱ’, 최두석 ‘성애꽃’,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뒤편의 편지’

3.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窓)의 안쪽 공간에 있다.
→ (가)의 화자는 집 안에, (나)의 화자는 시내버스 안에 있으므로 창(窓)의 안쪽 공간에 있지만, (다)의 화자는 창 밖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의 바깥쪽 공간은 산으로 사회 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나)의 창은 (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나)의 화자는 창을 통해 소통하지 않는다. 외부와 소통하고 있는 것은 창 밖의 자연물인 산을 예찬하고 있는 (가)라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나)는 창에 붙은 성애꽃을 지우고 이마를 대어보는 것에서 창에 다가가고 있을 뿐, 창 바깥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 (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 (나)의 창은 창에 붙은 성애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창(窓)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아닌, 창 안쪽 공간에 있던 존재들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창은 창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을 볼 수 있는 통로의 역할로, 창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나)에서는 ‘-던가’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가)의 시선은 산에만 초점이 잡혀있을 뿐,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사람과 산을, (나)는 ‘엄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어나는 성애꽃’과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나)와 <보기> 모두 창문에 성에꽃이 피는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보기>에서는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에 꽃의 순간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으므로 적절하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보기>에서는 성에꽃에 대해 ‘투명한 꽃’, ‘니르바나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도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모두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나)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먼회마저 금지된 친구여.’에서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라고 말하며 절망과는 거리가 먼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

을 떠올리고 있다.

→ (나)에서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라는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 화자는 유리를 닦는다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해가 지고, 뜨고, 햇살이 퍼지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시상을 전개하며 ‘나는 바라봅니다’, ‘나는 또 바라봅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의 화자는 고층 빌딩을 닦으며 창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을 뿐, 예찬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유리창에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화자가 ‘해가 지는 아침’, ‘해가 뜨는 저녁’과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며 화자가 인식하는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7~9] 2009.10 과학

7.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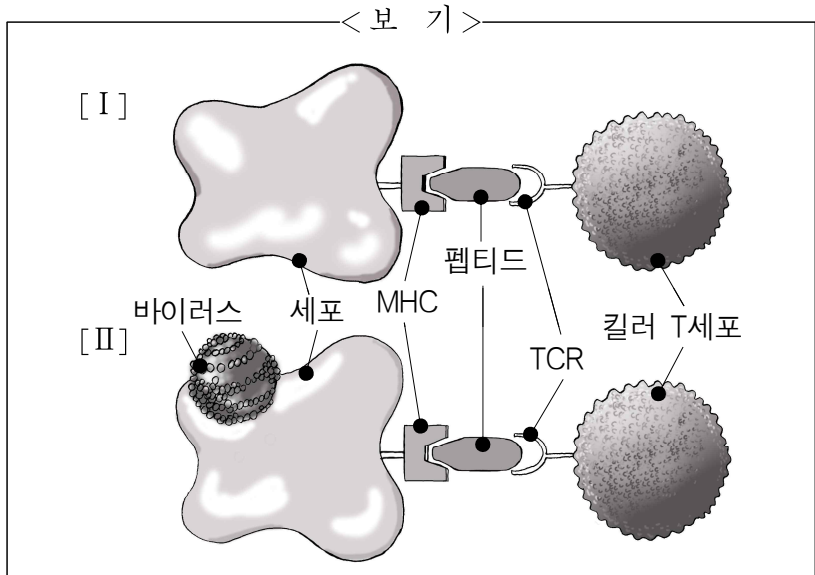
- ①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이 글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은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대상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킬러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1문단의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2문단의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처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 2문단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킬러 T세포와 헬퍼 T세포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1문단에서 '여기서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8. 윗글을 과학 잡지에 기고하고자 할 때,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면역 시스템을 가진 우리 몸
- 바이러스 퇴치의 첩병, 킬러 T세포
- ② 생체 신비의 현장인 우리 몸
- 신기한 생체 현상을 만드는 마술가, 킬러 T세포
- ③ 힘센 바이러스들의 각축장인 우리 몸
- 바이러스들 간의 충돌을 막는 중재자, 킬러 T세포
- ④ 세포들의 삶과 죽음의 공간인 우리 몸
-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관리인, 킬러 T세포
- ⑤ 자립적 유기체인 우리 몸
- 외부의 도움 없이 세포를 생산하는 활동가, 킬러 T세포

[해설] 위 지문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 중 킬러 T세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면역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킬러 T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①이 적절하다.

9.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의 '킬러 T세포'는 세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군.
 → [I]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아니므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 ② [I]의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세포 안의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겠군.
 → [I]은 정상 세포이다. 따라서 자기 단백질만 가지고 있다. 3문단에 따르면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II]의 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소멸되겠군.
 → 2문단에 따르면 [II]의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이다. 이 세포는 킬러 T세포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다.
- ④ [II]의 '펩티드'는 세포 속 바이러스가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겠군.
 → [II]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이다. 따라서 [II]의 '펩티드'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해되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인데, 바이러스 그 자체가 이동한 것은 아니다.
- ⑤ [I], [II]의 'TCR'은 'MHC'와 '펩티드'의 결합 구조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군.
 → 4문단에 따르면 TCR은 킬러 T세포 표면에서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10~13] 2016.03 경제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이 글은 1970년대의 이전, 이후의 경기 변동의 주 원인에 대한 견해를 소개한 후, 루카스의 이론, 루카스에 대한 비판, 최근 일부 학자의 견해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 4문단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 ④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4문단의 예시에서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영향은 서술하고 있으나,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이 달라진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 5문단에서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부양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1문단에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2문단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는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이 견해는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5문단에 제시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실물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
 → 5문단에서 루카스의 견해인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으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 6문단에서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제 협력이 밀접한 국가는 경기 변동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12. ㉠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 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 ①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려
 ③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해설] 4문단의 가상의 사례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선호도에 의해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모르는 기업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고, 선호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 선호도 상승으로 오인하여 생산량을 늘린 경우에는 잘못을 깨닫고 상품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한 경우 기업들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13.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마 후에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의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다. 해당 문장에서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그녀는 싸움이 일어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났다.
→ ㉠의 의미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의미이다. 해당 문장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그는 친구의 말에 화가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의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다. 해당 문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아리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 ㉠의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다. 해당 문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체육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대한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
→ ㉠의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다. 해당 문장에서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17] 2014.03A 황석영 ‘삼포 가는 길’

14. ㉠와 ㉡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은 고민하고 있는 영달의 모습을 ㉡는 울먹거리는 백화의 모습을 표현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로 사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와 ㉡는 요약적 서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삼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이 글이 삼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와 ㉡ 모두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 ⑤ 배경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와 ㉡는 모두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배경 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백화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달에게 정씨가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영달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영달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영달은 희망에 부풀어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 정씨는 영달의 처지를 고려하여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씨는 영달이 갈 곳이 없다는 처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고향인 삼포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 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백화에게 주기 위해 표와 빵, 달걀을 사는 영달의 모습에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정씨와 영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백화의 모습에서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